월요논단

장애인 체육지원의 필요성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다양한 자기계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포츠가 아닐까 싶다. 스포츠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스포츠는 고대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활동들은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통해 더욱 활기를 띄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은 신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와 정신을 단련시켜 올림픽을 통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최선의 방법이였으나 여성, 노예 등은 참석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축제였다. 근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의 신체적, 정신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바탕을 계승하고 국가나 개인,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패럴림픽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올림픽이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은 뜨거운 화두이고, 인기있는 경기들은 생중계로 공중파에서 방송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패럴림픽은 하이라이트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보도 분량이 늘어가고는 있으나 올림픽의 보도 분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편이다. 많은 세기동안 사회의 일원으로써 장애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불편해진다. 또한 장애발생 원인은 80% 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기인한다. 장애는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틀린'이 아니라 '다른'이고 삶의 존엄함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스포츠 경기에서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경험은 다르지 않으며 그들의 노력의 결과인 메달 또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

일단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활동에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전문적인 선수 선발 및 육성 프로그램의 미흡함과 선수 지원의 열악함, 훈련시설의 이용제한 등이 있다. 전용 훈련장 환경이 외국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고, 일부 종목 선수들은 전용 훈련장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비 구입이나 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열악해 사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장애인 스포츠 선수 육성이 활발하게 이뤄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의 연계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적인 선수 선발이나 지도자 양성에 한계를 나타낸다. 전문적인 선수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이다. 그동안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향상돼 왔지만 그 혜택의 폭이 좁아 선수들의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할 때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현 제주경제, '전 도민 지원대상'이 답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대상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1차 제주형 긴급지원금을 '선별적 지급'을 하고 2차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전 도민 대상 '보편적 지급' 필요성이 급부상한 겁니다.

도의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지원금의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합쳐 모든 도민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전 도민 제주형 지원금 의견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원내대표 긴급회견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박원철 민주당 도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통합당 도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회견에서 "1차 지급결과 150억원이 남았고, 600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안되는 것인만큼 전 도민에 지급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선별지급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일로'를 걷는 제주경제에 도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제주경제의 실상은 통계청의 '올 1분기 제주지역경제동향'에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시장 '한파'로 제주지역 소매판매(소비)가 14.8%나 급락해 대구(-9.9%)보다 나빴는가 하면 도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도 전년대비 10.3%나 역대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건설수주액도 전년보다 25% 이상 줄었고, 고용률도 67.5%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습니다. 지역인구는 10년만에 1분기 순유출이 568명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주형 긴급지원금 2차 지원은 최근 여론을 감안, 전 도민대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현 지역경제 실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제주4·3특별법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4·3특별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엊그제 도청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인 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정 역시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듯이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년 반 가까이 헛되이 보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 공권력에 짓밟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정치권은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는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피해자와 유족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린마당

성희롱 행위자의 인식개선

양 소 연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약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접촉 및 추행이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일부 성희롱 가해자들 중에는 '남자끼리인데 뭘 그러냐', '친한사이라서 농담한 것이다'라며 성희롱을 장난과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다', '고의는 없었다', '성희롱인 줄 몰랐다' 등 처음부터 행위 자체를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직장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치하고, 신고 및 상담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위자의 인식 개선이 돼야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 자체적으로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 인권 위원회(1331), 여성 긴급전화(1336), 한국 성폭력 상담소(02-338-5801)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道, 오리온 용암수 국내판매 허용 의문

'공수화 원칙' 논란 예상

○…제주도가 국내 판매 불허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지난 22일 오리온과 상생협약을 체결, 용암수 오프라인 판매와 가정배달을 허용해 '공수화 원칙'에 따른 논란이 예상.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판매를 허용했지만 용암수의 일일 생산량을 200t으로 제한하고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25일부터 판매 부진으로 잠정중단 됐던 생산공장이 재가동하며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 백금탁기자

물놀이철 코로나19 상황 촉각

○…여름철 하천과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촉각.

제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20곳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주의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구조함 정비상태 등을 점검 중인데 여름철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들 물놀이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서귀포보건소가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 지역 내 노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추진.

이 사업은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상대적으로 결핵 발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13곳 58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는 객담검사 등 정밀 검진과 함께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후검사를 실시하며, 확진 시 사례조사 후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 현영종기자

부 고

홍창규(자영업) 아버지 **남양홍공 성보(前 수협조합장·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2일 09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5월 25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0년 5월 26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제주대학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 오등동 선영

아 들 홍창규
홍수명 며느리 고정란
홍수봉 고성숙
홍수민 부 현
손 홍대기

※연락처 : 홍창규 010-3696-2453
홍수명 010-3696-2560
홍수봉 010-7253-2358
홍수민 010-2696-0103

부 고

고동일(前 고산농협조합장) 어머니 **김해김씨 명수(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3일 20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5월 26일(화요일) (조문은 24일 오후부터 가능)
▶발인일시 : 2020년 5월 27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 한림 정낭장례식장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고동일 며느리 김보열
상조 허희선
딸 고옥랑
옥재 사 위 오세정
옥여 송호철

※연락처 : 고동일 010-3698-3693
고상조 010-4193-1983
고옥랑 010-3591-5365
고옥재 010-7174-4051
고옥여 010-6772-4777
오세정 010-5567-4272
송호철 010-2697-3777

부 고

김수정 남편 **남양홍공 민수(쉐보레 선진대리점 이사, 제일고 33회, 향년 50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3일 22시 5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5월 25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0년 5월 26일(화요일) 오전 6시 15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 양지공원

부 인 김수정
딸 홍예린
예은
형 홍범석 형 수 이미숙
누 나 홍선영 매 형 김용규
선희 강용훈

※연락처 : 김수정 010-3694-5452
홍범석 010-9433-5464
고정호 010-2693-317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고부이씨 정화**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5일

남 편 임명유
아 들 임택규 며느리 김지영
택진 양선숙
택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이씨 기효(향년 10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5일

아 들 강봉언 며느리 모창심
문언 양정순
두언 이문순
승언 허영희
딸 강인순
무순 사 위 김종언
묘순
신순
말순 이재형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 고 인 **심 상 환**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22.

판사 서 근 찬

급 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